

마을별 추모행사 늘려 ‘시민 속 5·18’ 초점

■ 5·18 34주년 마을별 행사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달·빛·동맹 프로젝트	5.15	5·18 국립모역 및 광주지역관내
사진 속에 담아본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	5.12~21	홍플러스게임점 정문 인도 60M 구간
내 손으로 만드는 5·18민중항쟁	5.17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치유와 평화의 주남마을공동체 기억이 니온이 축제	5.16	동구 주남마을
마을에서 배우는 5·18		
지역주민참여 오월문화제	5.24	서구 상무2동 “쌍학공원”
우리동네 5·18어린이교육 ‘내가 만드는 즐거운 오광(五光)’	5.17	서구 동천동 동천마을3단지 중앙광장
5·18민주항쟁정신 계승하자! 밋밋마을 한마당	5.17	방림2동 샘지공원 및 뽕뽕다리 전시장
주민과 하나되는 5·18행진	5.16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 한신아파트 앞 네거리
황토 천연염색 체험 및 주먹밥나누기 깨어나는 남구 마을의 민주주의 음악제	5.18	영산강 문화원
님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 촉구 물레쉬 뭉 & 5월, 사람, 책	5.3. 10	국립 5·18민주묘지·북구 문화근린공원·광주역광장·광천터미널·햇살마루 작은도서관
동네어르신과 함께하는 5·18나눔행사 삼색(문화·나눔·참여) 5·18기념행사	5.7~31	관내 경로당
5·18의 세계와 우리동네에서 함께합니다. 오나함으로 다시서는 5월	5.17	수완호수공원광장
5·18민주기념일 알다!	5.17	이마트광산점일원
주먹밥 나눔 행사	5.17	첨단 쌍암공원
5·18이 밝이다		송정1동 송정 우회도로
마을에서 배우고 느끼는 5·18민주항쟁-5·18놀이배움터	5.17	목련마을 제2풍영정공원
윤상원 열사를 만나러 가는 5·18광산길 도보순례	5.17	윤상원열사 생가(임곡동 천동마을)
34주년 광주동구 기념행사		
합창단 초청 국제 교류 음악제	5.18~19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구 전남도청 앞 금남로 일대·광주콘텐츠 산업지원관
5월 십리 치유이동센터	5.17~18	구 전남도청앞·국립5·18민주묘지
오월에 5·18주모 도네이션 프로젝트 “어머니의 바다”	5.17~8, 24~25	연극전용소극장 “예술인사랑방”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찜뽕버거”	5.19~31 매주 금요일	민들레소극장
5·18민중항쟁 제34주년 추모법회 라디언터이람	5.17	망월동구묘역
달콤한 오월길 무빙(Moving) 콘서트	5.17~18 오후 5시18분	전남대학교·광주역 광주공원·문화전당
오월문학제 및 전국문학인대회 “문학, 민주주의와 마을을 노래하다”	5.17~18	전남대·광주역·대인지하도·금남로 (오월길 햇불코스)
5·18 34주년 정신계승 광주역사기행 및 전국대학생 5월 한마당		5·18자유관 강당
오월여성제	5.16	광주여성회·국립 5·18민주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5·18 정신계승 2014한국청년대회		
찾아가는 5·18 34주년 광양시행사	5.21	청소년문화센터·청덕아파트 광양읍 청덕에비빌아파트
5·18 34주년기념 나주시행사	5.16~19	나주시 일원 및 5·18국립묘지
5·18 34주년기념 목포시행사	5.17	목포역광장
5·18 34주년기념 순천시행사		
5·18 34주년기념 강진군행사	5.18	웅천천수해변공원
5·18 34주년기념 강진군행사	5.17	강진아트홀 야외광장
5·18 34주년기념 완도군행사	5.20~22	완도 해변공원 음악대·인공폭포 정터 일구
주먹밥만들기	5.17	금남로 일대
시민과 함께하는 주먹밥나눔	5.17	국립 5·18민주묘지·금남로 일대
그해 오월전	5.12~18	전남대학교 봉지·망월동 신묘역
5·18민중항쟁 기념전시 및 설치전 “甲午歲 기보세 같이 가보세”		
5·18민중항쟁 34주년 기념 열거그림전 “오월, 여성으로 살다”	5.15~29	망월동 구묘역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식	5.16~27	민재아트센터 1층
5·18민중항쟁 34주년기념 강연회 및 문화제	5.17~19	서울 시청 앞
대구 경복행사	5.15	대전역사광장
5·18민중항쟁 34주년 부산기념행사	5.18	2·28기념중앙공원 청소년광장(미정)
	5.17~18	광주일대(5·18도역 및 금남로 등)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 5·18 34주년 주요 행사 내용

내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서울 등서 50개 행사 진행 5월단체 정부 주관 행사 불참...국비 1억여원도 반납키로

5·18 민중항쟁 제34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 등이 5·18 34주년 기념식 불참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정한 데는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 및 안이한 역사 인식에 대한 불만이 맞물리면서 비롯됐다는 게 일 반적 평가다.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유희 집압한, 그날의 ‘학살’ 이후 33년이 흘렀지만 달라지지 않는 ‘5월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안이한 역사 인식 수준을 더이상 참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차라리 정부 기념식 하지 말라”=5월 단체 등은 현 인식 수준대로라면 정부가 주도해 5·18 기념식을 치르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말 뿐인 정부 기념식’일 뿐 정부 스스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게 이들 목소리다.

5월 관련단체 등은 5·18 역사왜곡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국가보훈처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해왔다.

보훈처는 그러나 1년 넘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입장을 유보해오다 최근 기념곡 불가 및 기념식 제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내놓은 결의안조차 무색하게 하는 조치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단체는 5·18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는 행태

도 벌어졌다.

그나마 정부는 지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5·18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폄훼·왜곡되는 상황에서도 미온적 대처를 해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5월 단체 등의 결정은 이같은 정부 행태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하면서 비롯됐다는 게 5월 단체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이런 정부 돈도 안 받겠다”=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5·18 기념식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의미가 없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5·18 기념행사로 치러지는 추모제·부활제·5·18과 언론, 학술대회 등을 취소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5월 단체 등은 더 나아가 시도민들에게 5·18 기념식 불참도 호소키로 했다.

사실상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정부의 역사 인식을 감안하면,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르거나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부끄럽다는 것이다.

◇마을별 행사는 자체적으로 치르기로=행사위는 그러나 광주시 등의 지원을 받는 마을별 행사는 예정대로 치러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5월 행사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주관의 5·18 기념식을 하지 않더라도 5·18 기념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다.

행사위는 9일부터 31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정신계승, 문화·예술, 학술·교육, 국제·타지역연대 등 10여개 분야 50여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 반면, 2명은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4월 14·15일 이틀간 전국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지정해야 한다’가 59.8%,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22.3%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역별로는 호남과 수도권, 충청권에서 찬성의견이 60%를 넘었고 부산·울산·경남 56.2%, 대구·경북 47.6% 등 영남권에서도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압도했다. 강원·제주는 찬성의견이 53.3%였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하 행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엄단해야 한다”가 54%였고, “법적 조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35.8%로, 5·18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해질 19:23

달출몰 13:05
달짐 01:32

진도해상 '오전에 비'

비온 뒤 오후에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14/21	보성	비	11/21
목포	비	14/18	순천	비	13/23
여수	비	14/20	영광	비	14/17
나주	비	14/20	진도	비	14/18
완도	비	14/21	전주	비	13/21
구례	비	14/23	군산	비	12/17
강진	비	13/21	남원	비	11/21
해남	비	14/20	흑산도	비	12/16
장성	비	13/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2.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1.0~2.5	북서~북 1.0~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0.5~1.0
서해	앞바다 남서~서 1.0~2.0	서~북서 1.0~2.0

◇돌매

	밀물	썰물
목포	01:03	08:13
	14:36	20:42
여수	03:26	10:03
	16:33	22:25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0/26	13/22	14/20	14/22	13/25	14/26	13/25

◇생활지수

	30
	50
	20

세월호보다 낡은 배 이용

전남 선상무지개학교 중단될 듯

목포해양대 실습선 선정 22년...도교육청, 사고 우려에 재검토

전남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상 무지개학교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세월호 참사로 선박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데다, 선상 무지개학교가 열리는 목포해양대 실습선이 노후해 학생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7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남지역 중학생 200명을 배에 태우고 독도와 일본·중국을 돌며 견문을 넓히는 선상 무지개학교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여름방학 3주간 선상 무지개학교를 계획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취소됐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영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국립대학 실습선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학 실습선 가운데 66.7%가 선정 20년이 넘는 노후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선상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해양대 실습선인 3600t급 새유달호는 1993년 건조돼 선정

이 22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침몰한 세월호가 선정 21년인 것과 비교하면 새유달호는 더 낡았다.

또 다른 실습선인 4700t급 새누리호는 2003년에 건조돼 12년 됐다.

전남대 수산계열(여수캠퍼스) 실습선도 낡았다. 1000t급 동백호는 새유달호와 마찬가지로 선정이 22년된 노후선박이다.

이처럼 전남지역 대학 실습선이 모두 노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배를 이용해 선상 무지개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노후선박으로 한 달 이상씩 외국으로 운항실습을 한다는 것은 학생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습선 건조예산을 편성해 노후선박을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선상 무지개학교는 세월호 참사로 전면 취소됐다”며 “선박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노후선박인 새유달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교설립 60주년 기념(1954~2014)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4년 준계 학술대회

“지역사회 Community를 통한 군사회복지 실천”



총 장
정규남 박사

일 시 _ 5월 10일(토) 13:00~17:00

장 소 _ 광신대학교 국제관1층 국제회의실

•한 영 사: 정규남 총장 (광신대학교)

•기조강연: 박미은 교수 (전, 한국 정신보건학회장) “지역사회를 통한 군 사회복지 실천”

•미군사회복지해외연수 결과보고 (이흥윤 학회장)

•주제발표: 황성철 교수 (신라대학교) “군사재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방안”
토 론 자: 김형수 교수 (광신대학교)

•제4대 한국군사회복지학회장 선출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창립식

• 명예군사회복지사 위촉

•한국군사회복지사협회 창립기념 특별강연
김성희 교수(전 보건복지부장관) 특강 [주제:통일한국과 군사회복지사의 역할]

문 의: 광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062)605-0933



두암실험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6개월 3.1%

1년 2.95%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실험

본 점 :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